

# SOCIETY

## 쉬면서 친환경 체험...금남로 차 없는 거리 '호응'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동구 고향사랑기부 '눈에 띄네' 23억원 돌파...성과·전략 공유

광주 동구의 고향사랑기부제 인기 비결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개됐다.

9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소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주관한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가 개최됐다.

정책연구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자체 홍보 전략, 성공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희선 광주 동구 고향사랑팀장이 '고향사랑기부제로 활력을 되찾다'란 주제로 주요 성과와 전략을 발표했다.

동구는 지난해 기부자 2만3399명, 기부금 23억9600만원을 기록해 전국 기초자치체 1위를 차지했다.

기부자 (8179명), 모금액 (9억2000만원)이 전년 대비 각각 2.9배, 2.6배가 늘었다.

동구는 2023년부터 민간플랫폼 도입과 함께 기부자와 지역사회 간 접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발 빠르게 기업사업과 답례품을 소재로 한 유튜브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철저한 준비가 이 같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광주극장 보존사업, 발달장애 청소년 E.T아구단 지원사업이 기부자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일빌딩245~금남로공원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운영

독서·체험 여유로움 만끽 동구, 지속가능 도시 구축

"차 없는 금남로를 걸어 다니며 힐링했어요."

지난 8일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일원.

오후 2시께 찾은 금남로는 휴식, 탄소중립을 체험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가득했다. 전일빌딩245~금남로공원 400여 m 구간에 '쉬자임', '즐어임', '놀자임' 구간으로 구분해 운영됐다.

파라솔, 인조잔디 등이 마련된 쉬자임 구역에는 지역 서점과 연계해 동구에서 추진 중인 '올해의 책'과 한강 작가의 '체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을 포함한 여러 책이 판매됐다.

어느 한 시민은 책을 구매한 후 반백 소파, 캠핑용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독서를 즐겼다.

즐어임에는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베품시장을 열고 제품 홍보·판매와 리사이클링 체험 등을 진행했다.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부스에서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뜨개질하며 각자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에 집중했다. 또 기



휴일을 맞아 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개막식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과 주민들이 자전거 및 도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과 분리 배출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알렸다.

'분필아트존'과 '도시에서 건강을 만나다' 부스에는 청소년, 청년의 인기가 높았다.

분필아트존에서는 형형색색 분필을 손에 들고 금남로를 스케치북 삼아 다채로운 캐릭터, 꽃, 나무, 강아지 등을 그려 표현력을 뽐냈다. '우리 같이 금남로를 걸어요', '엄마·아빠 사랑해요' 등 문구가 곳곳에 새겨졌다.

시민들은 금세 예술작품으로 변신한 금남로를 천천히 걸어 다니며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했다.

탄소중립 행사 취지에 맞게 텀블러를 지참한 시민에게 '도시에서 건강을 만나다' 부스에서 케모마일과 복숭아 아이스티를 무료로 제공하며 일회용품 줄이기, 탄소중립 등을 알렸다.

계림1동 주민 이기자씨(52·여)는 "아이들이 금남로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고 즐겁게 놀다가 많이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이날 개미시장 감성마켓을 열고 골동품, 가족공예품, 그림 등을 판매·전시하는 등 예술의거리 홍보에 나섰다.

이호철 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 회장은 "차 없는 거리상인회 간담회에서 제안된 개미시장 참여가 반영돼 예술의거리 홍보에 도움이 됐다"며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상시 참여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차를 가지고 나오면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때문으로 도시가 뜨거워진 다"며 "하루만이라도 건강한 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차 없는 거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일요일(10월 제외)에 금남로(전일빌딩245~금남로공원)를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한다. 금남로 차 없는 거리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용 중심으로 하는 교통체계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N-NEXUS**  
N·넥스 시리즈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엔지니어의 IT 기술이 탑재된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NHNETWORKS**

연구 & 개발 통합영상관리, 지능형 영상처리 솔루션, 제2차시 솔루션  
제조 & 제작 주·원재 단위 및 CCTV 시스템  
E·S·S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및 LED 조명 시스템, 구조물 및 형상시설 아연이 인산 용성 보조 장치  
설계 & 지원 유·무선망 관제망, 서버네트워크, 영상관제, 보안·지능형관제·영상추적 시스템  
유지보수 & 관리 ICT 장비, ICT 운영 및 유지보수  
시공 & 설치 정보통신망사, 소프트웨어, 설비, 광학 ICT 분야, 서버, ITS 설비, 열차통신 시스템, 해외협력사업

TEL 062-719-1080-2

### “대한독립만세! 만세!”...3·10만세운동 재현

광주 남구 양림동 일원  
송일고·수피아여중고  
학생 등 1000여명 참여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지난 7일 광주 남구 양림동 일원에서 3·10만세운동이 재현됐다. 3·10만세운동은 106년 전 당시 광주·전남 최후이자 최대 규모로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을 촉구한 항일운동이다.

광주 3·1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광주지방보훈청과 남구청이 후원한 행사에는 광주 수피아여중·고 및 송일고 학생, 시민 등 1000여명이 함께했다.

본 행사에 앞서 수피아여고 학생들이 준비한 만세 깃발 퍼포먼스와 오방최홍종기념관서 마련한 시민거리극 '3·1만세운동의 불씨가 되어' 등이 진행돼 많은 이목을 끌었다.

이후 학생 대표의 기념사와 독립선언서 낭독, 광주지역 3·1운동의 증증을 맡았던 독립운동가 김철 선생 제2회 광주 3·10독립만세운동상 서훈 등이 이어졌다.

김철 선생은 3·1운동을 펼치다 체포돼 3년 징역형을 살았으며, 광주YMCA 재초대 총무와 신간회 간사,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평생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참석자 모두가 그날의 울림을 재현하는 만세 행진의 시간을 가졌다.

대형 태극기를 필두로 수피아여고에서 양림교회를 거쳐 만세운동 태동지와 3·1만세운동길, 옛 송일학교, 양림오거리까지 행진한 뒤 수피아여고 학생 200여명의 플래시몹 공연을 진행했다.

김석기광주지방보훈청장은 “일제강점기에 온 몸으로 독립 만세 운동을 불렀던 수피아여고 학생들 모두가 광주의 유관순이었다”면서 “의혈지사 윤흥숙 열사를 비롯해 23분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광주수피아여고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 지방보훈청은 다양한 기념사업으로 '모두의 광복,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전남 중증외상 환자 이송 시간 '증가세'

2023 지역사회기반 통계...전국 평균비 광주↓·전남↑

광주지역 119구급대가 중증외상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질병관리청의 "2023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지역 내 중증외상 환자 신고 후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7분이었다.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는 해마다 이뤄지는 119 구급대가 응급실로 이송한 이 줄었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8분 더 길어진 셈이다.

전남지역은 해마다 전국 평균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전남지역의 소요시간은 37분으로, 전국 평균 소요시간보다 4분이 길었다. 2016년과 비교해도 8분이 늘어난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중증외상 이송소요시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6분이었던 시간은 2017~2018년 27분, 2019년 28분, 2020년 32분, 2021년 34분, 2022년 35분까지 늘었다. 지난 2023년에는 33분으로 소폭 감소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